

미래약사의 역할 및 필요역량

한미선, 강미라, 임수진, 김현아, 강민구*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2015년 7월 21일 접수 · 2015년 8월 19일 수정 · 2015년 8월 21일 승인)

Required Competency and Role for the Future Pharmacist

Miseon Han, Mira Kang, Soojin Lim, Hyeona Kim, and Minku Kang*

College of Pharmacy, Woosuk University, Jeon-Buk 565-701, South Korea

(Received July 21, 2015 · Revised August 19, 2015 · Accepted August 21, 2015)

ABSTRACT

Keywords:

seven star pharmacist

FIP

WHO

pharmacist role

Korean pharmacist competency

Background: As Korea's current socioeconomic status is becoming higher than ever before, the patients' level of knowledge and healthcare quality which they demand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s also increasing. Pharmacists, as a member of the healthcare team, are asked not only to supply medicine and ensure accurate dispensing but also perform as health professionals to provide better care to the public. Therefore, the current role of pharmacists is developing rapidly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Methods: To retrieve information for competencies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medicine and performing the role of health professionals effectively, we looked through the guidelines publish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 and compared the standard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KPA) and other related associations. Results: Based on the study, we found that WHO suggests seven roles for pharmacists: a caregiver, decision-maker, communicator, manager, life-long learner, teacher, and leader. KPA set the standard as pharmacist obligation/role but difficult to find required competencies to address the obligation/role. Conclusion: Thus, by establishing guidelines in detail to meet obligation and stretching the role as vision in Korea, pharmacists will be able to deliver more value to the patient as well as the community.

서론

2000년 7월에 시행된 의약분업은 약국약사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에 관련하여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분업 이전에 약국은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의 일차의료서비스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 부분도 있었지만, 분업 이후 약국서비스는 일반의약품 등의 판매가 줄어들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가 주된 역할이 되는 형태로 변화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은 약

국약사의 전문성(professionalism), 직업의 정체성, 그리고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여 약물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환자 또는 다른 의료인들과의 관계, 상업적 역할과 전문직 역할의 공존 등의 여러 가지 쟁점도 대두되었다.¹⁾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자들의 지식 수준 및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져 약사의 역할이 단순

한 의약품 공급과 정확한 조제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요구 받게 되었다.

약사의 전문성이 신념과 가치의 체계를 내포한다고 할 때 지역보건의료에 일차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약국약사들이 어떻게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는가에 기반을 두어 보건 의료체계 내의 약사의 역할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¹⁾

현재 약사는 의약분업 전 진단과 처방업무 시 가졌던 부담감을 버리고 의약분업 후 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약사의 업무 중 상당한 부분이 ‘처방에 의한 단순 조제행위’에 머무르면서 대중이 인식하는 전문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보건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발맞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나라 약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와 세계약사연맹(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이하 ‘FIP’), 그리고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 of Pharmacy (AAPC)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대한약사회(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KPA) 및 관련단체에서 규정한 약사의 역할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미래약사의 역할 및 조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약사의 정의 및 역할

1. 디오스코리데스 선서와 대한약사회 윤리강령

약국약사의 전문주의에 관한 연구들은 전문직 윤리를 포함하여 개인이나 전문직 집단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유동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전문인들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직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며, 자신들이 봉사

하는 대상, 즉 환자나 고객과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 때의 행동규범이 되어 줄 윤리 원칙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윤리강령을 1965년에 채택하여 현재는 1984년 개정안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강령(이하 ‘대약강령’)에는 약사직능의 다양한 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Table 1). 국민보건을 위한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 ‘약학의 전문가’로서 우수한 의약품 개발, ‘약업의 주관자’로서 효과적인 질병치료에 이바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준법정신과 사명감을 강조하여 최종적으로는 ‘약업의 공익성 및 상호협조와 질서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윤리강령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2007년 개정안(Table 1)으로 제시되었었던 항목들을 보면 약사의 조제업무 중 처방검토와 복약지도에 관련된 사항이나, 약사의 국민보건교육에서의 역할 등이 고려되었었다. 하지만 현재의 대약강령은 미국 AAPC 약사윤리강령(2007년 개정안, Table 2)과 비교해볼 때,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환자와 약사의 관계, 비밀유지의 의무 항목 등이 빠져있다. 현행 대약강령의 윤리원칙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약강령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²⁾

윤리강령이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한다면 선서는 윤리강령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공적인 행위이다. 의사, 간호사 등의 다른 전문 직업군에서도 윤리강령과는 별도로 선서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약사의 경우에는 대한약사회나 대한약학회, 혹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차원에서 약사의 선서를 제정한 적은 없지만 2001년 경성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당시 미국 약사의 선서 문안을 번안하여 사용한 이후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약사의 선서로 이용하고 있다. 이 선

Table 1. Code of ethics for Korean pharmacists by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현행 약사윤리강령(1984년 개정)	약사윤리강령* (2007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 약사는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며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약사는 약업의 주관자로서 항상 우수한 의약품을 준비하여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약사는 약학의 전문가로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여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 약사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는 약학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며 국가보건 자원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전문인의 높은 긍지를 지켜야 한다. • 약사는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생명윤리관과 준법정신을 함양한다. • 약사는 효과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정진한다. • 약사는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처방검토와 복약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 약사는 새로운 약학정보와 지식의 수용을 위해 평생학습을 충실히 이행한다. • 약사는 국민보건교육에 앞장서야 하며 사회봉사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약사는 모든 보건의료인과 상호협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질서를 확립한다.

*Revision proposed in 2007 was not adopted. Text provided by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서문은 현재 전국의 약학대학 학생회의 자율조직인 전국 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에서 매년 출범식 때마다 낭독되고 있다.²⁾

‘디오스кори데스 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명의 존중과 인류의 복지, 행복을 위하여 약학의 전문인으로서의 헌신적인 삶을 선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성실성, 꾸준한 약학지식 및 기술의 연마, 법 제도와 도덕적 가치규범의 준수를 약속하고 있다(Table 3).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약사란 무엇일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약물복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며, 약의 생산 조제 공급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약사법에 의해 약(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능인으로서 약사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국시원에서는 약사가 일차보건담당자로서 약국이 가진 전문성과 접근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약사는 환자 및 다른 의료인들에게 의약품의 치료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약개발

및 사후관리 등 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보건 의료정책수립 등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⁴⁾

최근 개정된 약사법 2조 2항에 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약사법 2조 1항에 약사(藥事)라 함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수여포함)와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하여 약사(藥師)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약사(藥師)의 직능에 관해 약교협에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인 창약, 의약품의 생산 및 관리를 하는 업무인 제약, 생산된 의약품을 유통시켜 환자에게 투약하는 업무인 용약으로 나뉜다. 이처럼 우리나라 약사의 직능범위는 국민보건과 관련하여 그 역할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산업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더욱 더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⁵⁾

Table 2. Oath of a pharmacist by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pharmacy

Year 2007*

I promise to devote myself to a lifetime of service to others through the profession of pharmacy.

In fulfilling this vow:

- I will consider the welfare of humanity and relief of suffering my primary concerns.
- I will apply my knowledge, experience, and skills to the best of my ability to assure optimal outcomes for my patients.
- I will respect and protect all personal and health information entrusted to me.
- I accept the lifelong obligation to improve my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mpetence.
- I will hold myself and my colleagues to the highest principles of moral, ethical and legal conduct.
- I will embrace and advocate changes that improve patient care.
- I will utilize my knowledge, skills, experiences, and values to fulfill my obligation to educate and train next generation of pharmacists.
- I take these vows voluntarily with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esponsibility with which I am entrusted by the public.

*Revised code adopted in 2007 contains statements regarding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next generation of pharmacists.³⁾

Table 3. Oath of Dioscorides*

디오스кори데스 선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앞에서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내 삶을 인류를 위해 바치겠다는 엄숙한 선서를 합니다.

-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고통 받는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 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어떠한 생명이라도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언제나 나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복지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나는 약학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항상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나는 약학과 관련한 모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대중의 이익을 위한 모든 법 제도를 준수 하겠습니다.
-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도덕적 가치 규범을 따르겠습니다.
- 나는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 모든 조항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The oath written in Korean as prepared by M.S. Park based on 1994 oath, with some modification

WHO's 7-Star Pharmacist

1. WHO 약사의 정의

WHO에서는 약사를 “조제하고 투약하며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전문가와 환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의 약사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치료에 대한 조언자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약사는 환자들이 처방약물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까지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자가치료 할 수 있도록 clinical decision-maker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있다. 더 나아가 health care team의 일원으로서 역할이 부각되어짐에 따라, 의약품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약사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기술,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다른 보건 의료인들과의 협동적인 관계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⁶⁾

2. WHO 7-star pharmacist의 배경 및 소개^{7,8)}

약사의 역할은 현대 health care system의 요구에 맞춰 확대되고 있다. 처방에 따른 정확한 조제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 의료인들에게 자문역할을 하고, 최적의 약물 치료효과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의 사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인과 국민 모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바람직한 health care team의 일원을 양성하기 위해 WHO자문위원회에서는 “Preparing the Future Pharmacist” (Vancouver 1997)을 통해 약사들이 필수적,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필수역량으로 “Seven-star pharmacist”를 제시한다(Fig. 1, Table 4). 2000년에는 FIP에서 ‘Good Pharmacy Education Practice’에 사용하였다. 이후로 ‘Se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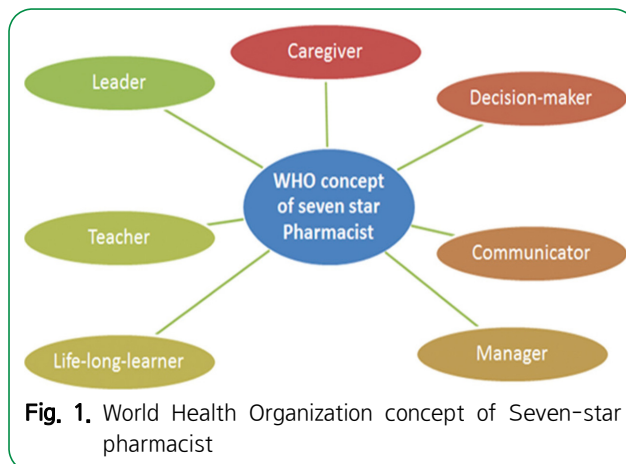


Fig. 1.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cept of Seven-star pharmacist

star pharmacist’는 미래 약사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2.1. Caregiver

약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약사로서의 전문 직능을 발휘한다. 첫째, 환자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약사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 직접적(e.g. clinical, dispensing) 혹은 간접적(e.g. analytical, technological, logistical, regulatory)으로 환자의 약물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 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약사는 개인이나 대중에게 약물과 관련된 교육, 정보, 제안을 제공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이 높은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2.2. Knowledge, Decision Making and Thinking Abilities

약사는 약학과 관련된 핵심정보의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Table 4. WHO Seven-star pharmacist

Caregiver	Provide caring services of the highest quality
Decision-Ma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urate decisions made or taken regarding appropriate, efficacious, safe, and cost-effective use of resources • Play a pivotal role in setting medicines policy
Communic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y a pivotal role in setting medicines policy • Have effective patient communication skills
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ve the ability to manage the natural and commercial resources
Life-Long Lear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rly update their knowledge and skills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current trends in issues-related to drug therapy management • Develop and maintain proficiency in delivering patient-centered care; practicing evidence-based medicine and focusing on quality improvement
Teac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sist with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future generations of pharmacists and the general public • offers an opportunity for professionals to gain new knowledge and to fine-tune existing skills
Lea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ys a leadership role in the healthcare system to make decisions, communicate, and manage effectively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정보를 조직적으로 접근하며 분석, 평가, 적용 하여야 하며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3. Communication Abilities

약사는 수많은 환자 및 다른 보건 의료인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에 대해 문자와 음성, 비음성적인 대화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 매체, 기술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4. Leadership Abilities

약사는 healthcare system 안에서 결정, 소통,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리더로서의 자질도 요구된다. 다른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높은 업무수행을 이끌어 내어 결국엔 지역사회 전반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5. Manager

약사는 자원(사람, 신체, 시간)과 정보를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무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2.6. Lifelong Learning Abilities

약물과 관련된 치료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역량을 키울 뿐만 아니라 약사의 직능과 사회에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성취하고 발전시키는 의미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2.7. Teacher

약사는 다음 세대의 약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약사 직능과 WHO 7-star pharmacist의 비교

앞서 제시한 대한약사회 윤리강령과 약교협 의 약사직능을 보면, WHO의 'seven-star pharmacist'만큼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진 않지만 공통적인 필요역량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사의 직능은 WHO 'seven-star pharmacist'가 'health care provider'를 양성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좀 더 다방면에 걸쳐 요

구되고 있다. 약교협의 약사직능에서 볼 수 있듯이 약사의 개발, 관리, 유통 등 의약품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역할과 함께 보건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점이 있다. 최근에 많은 약사들이 보건전문가로서의 직능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보건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WHO/FIP 가 제시하는 역량들이 무엇인지 좀더 살펴보고 이를 통해 health care team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미래 약사들에게 적용할 만한 필요역량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life-long learner'이다. 현행 약사윤리강령에도 새로운 지식연마를 언급하고 있지만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healthcare provider로서 지속적인 배움이 강조되어야 한다. 미국약학교육인증협의회 (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ACPE)는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삶의 전반에 걸쳐 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은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자신의 전문직능을 강화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⁹⁾ 약물과 관련된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동향들을 익히고 지속적인 지식 습득을 통해 환자에게 high-performance pharmacy practice를 제공하고 다른 보건 의료인들에게도 자문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 'caregiver'이다. 단순히 질병치료에만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친숙하게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을 살려 환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환자에게 약물과 관련된 정보, 교육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보건교육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봉사와 공익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communicator'이다. 변진옥등(2014)에 따르면 '드용(De Young, 1997)'은 과거에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전문 지식 등과 같은 특성보다 문제해결 능력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 우위에 두었다.¹⁾ 이는 꾸준히 지식습득을 하고 개인의 역량을 키워도 효과적으로 환자나 다른 보건 의료인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그 목적에 맞는 성과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들은 목적에 맞는 정보, 매체, 기술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leadership'이다. '로버츠 등(Roberts 등, 2005)'은 약국약사의 업무변화가 제품중심에서 서비스 지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변화의 원인으로 정부정

책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업무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서비스 전달에 대한 보상, 상호소통과 팀워크, 리더십 등을 꼽았다.¹⁾ 이러한 사회흐름에 맞춰 WHO에서도 양질의 환자케어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health care team 구성원들간의 협력, 소통, 관리 등을 리더로서의 자질로 요구하고 있다. 환자에게 보건 의료인들이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양질의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leadership’의 역량 또한 요구하는 바이다.

다섯째, ‘teacher’이다. 약사는 국민보건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약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단순히 약에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로서 지녀야 할 자세, 소명의식, 준법정신 등도 포함되며 자기 자신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약사는 ‘health care provider’로서 환자케어, 교육, 상담 그리고 신약개발 등의 다양한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환자와 좀 더 친근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약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health care system 내에서 다른 보건 의료인들과의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이끌어내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약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위의 5가지뿐만 아닐 것이다. 더불어 7가지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WHO ‘seven-star pharmacist’에서도 볼 수 있듯 각각의 역량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각각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전반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업무는 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시도와는 달리 단순 처방조제에 비중이 치우치면서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대중과의 인식차이가 발생하였다. 의약분업 이후 꾸준히 약에 대한 전문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약사의 역할에 맞춰 그 움직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자들의 지식수준 및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져 약사의 역할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요구 받게 되었다. 약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알아보고자 약사윤리강령 및 WHO ‘seven-star pharmacist’와 FIP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약사윤리강령에서는 약사가 가져야 할 직업에 대한 정체

성,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약업의 공익성 및 상호협조와 질서확립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환자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 처방검토와 복약지도의 강화, 비밀유지의 의무, 국민보건교육자의 역할 등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WHO ‘seven-star pharmacist’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사에게 요구하는 다방면의 역할을 좀 더 ‘health care provider’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준다. WHO에서는 약사를 health care team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의약품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약사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기술,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다른 보건 의료인들과의 협동적인 관계 형성 등이 약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손꼽힌다. WHO의 ‘seven-star pharmacist’에서 제시한 7가지의 역량(caregiver, decision-maker, communicator, manager, life-long learner, teacher, leader) 뿐만 아니라 2006년 FIP ‘Developing Pharmacy Practice-A focus on patient care’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researcher’ (for evidence-based care) 까지 모든 역량들이 우리나라 약사들에게 healthcare provider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역량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약사들은 한 가지 역량에 집중해서 전반적인 역량 향상에 실패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궁극적으로 약사윤리강령에서 제시하는 덕목을 모두 갖춘 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 약사직능 가이드라인(역량)과 역할을 뛰어넘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WHO/FIP ‘seven-star pharmacist’가 제시하는 역량과 그 의미를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궁극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약사의 비전과 역량이 정립된다면 약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뿐만 아니라 약사가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까지 다시 재구성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Byeon J, Cho BH.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actice of Community Pharmacists' Social Roles after the Separation of Drug Prescribing and Dispensing in Korea. Health and Social Science 2014;35:107-144.
- 2) Joo SH, Shin BS, Park MS. Pharmacist Code of Ethics and Oath of Dioscorides, Yakhak Hoeji 2012;56(5):275-278.
- 3) Minutes of the House of Delegates Sessions. Am J Pharm Educ 2007;71:S16.

- 4) NHPLEB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available at www.kuksiwon.or.kr/Examination/OccuLicense.aspx?PageName=LicensInfo&JobCode=06&SiteGnb=8&SiteLnb=1 (Accessed on May 15, 2015)
- 5) Korean Association of Pharmacy Education; Education of Pharmacy Practice, available at www.pkape.or.kr (Accessed on May 15, 2015)
- 6) Developing Pharmacy Practice (A focus on patient care) Handbook, WHO, FIP (2006 Edition)
- 7) FIP Statement of Policy on Good Pharmacy Education Practice, Approved by FIP Council in Vienna. 2000, p1-8.
- 8) Seven-star pharmacist concept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Journal of Young Pharmacists 2014; 6 :1-3
- 9)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The 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ACPE), available at www.acpe-accredit.org/ceproviders/CPD.asp (Accessed on May 22, 2015)